

FI Weekly

채권 김지나

6148/jnkim0526@eugenefn.com

7월 FOMC 프리뷰: 인상에 대한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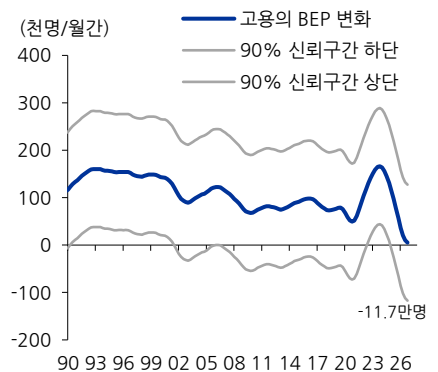
- “ 이번 주 7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당사 예상 및 컨센서스 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7월 중 촉발된 미국-이란 간 공격과 그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관건임.
- “ FOMC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힌트는 찾을 수 없을 것. 경제전망 및 점도표가 공개됐던 6월 회의에서조차 통화정책 방향을 언급하지 않았고, 포워드 가이드선도 삭제했었음. 성명서와 기자회견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번 회의는 더더욱 의증을 알기 어려움. 워시 의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전쟁으로 다시 유발됐으니 아마도 매파적인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도가 합리적인 예상 수준.
- “ 다행히 주말 사이 2주 만에 미국이 공습을 중단했고, 파키스탄이 양국 간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유가 하락 전환한 것은 시중금리에 긍정적. 그럼에도 통화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이번 공습으로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불안이 추가된 데다가, 이미 발생한 유가 상승에 대한 물가 압력이 7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
- “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황이 불안정하다면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 전쟁 발 물가 압력 뿐 아니라 고용 안정에서 수반되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될 경우 종전 이후 조금 늦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음.
- “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을 반영 중. 미국채 10년 금리가 의미 있는 수준(4% 초반)까지 하락하기 위해서는 1) 종전의 확신으로 7월 FOMC 회의 이후에 공개될 점도표나 경제전망에서 이를 고려한 변화가 확인되거나 2) 물가지표가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경우 정도로 요약 가능.
- “ 당장 7월 물가는 6월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기저물가를 나타내는 sticky 물가도 낮지 않은 수준. 워시 의장이 대체 지표로서 긍정적을 언급했던 Trimmed Mean PCE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목표치는 상회하고 있음. 또한 연준의 최근 통화정책 보고서는 본 지표에 대해 전체적인 미래 예측에는 유용하나 가격 변동이 급격한 시기에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수한 변동성 시기 및 가격 변화가 큰 상황에서 본 지표의 중요도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FOMC의 매파적 태도는 보수적으로 유지될 전망.

국제유가와 미국채 10년 금리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고용, BEP보다 매우 좋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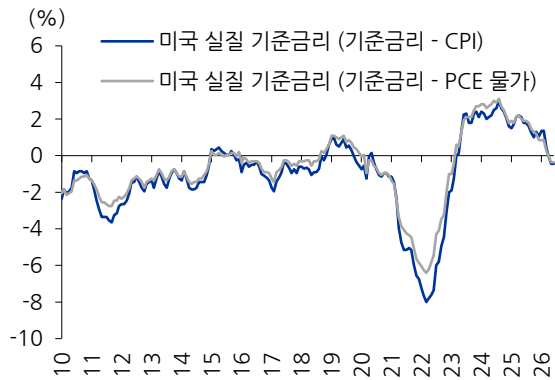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수요 및 기저 인플레 높다면 추후 인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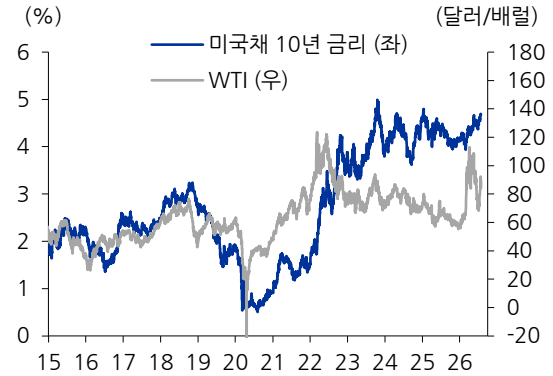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미국 실질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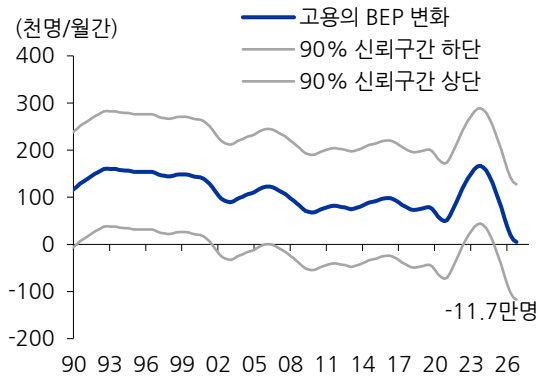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제유가와 미국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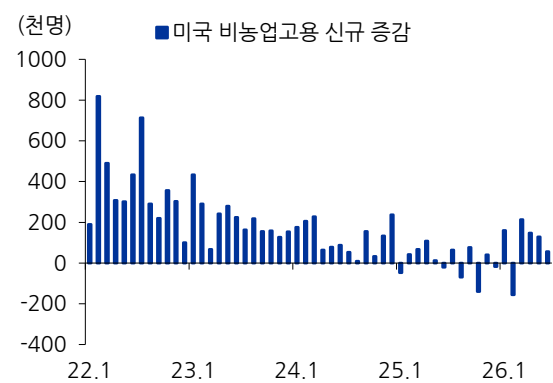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연준이 예상한 고용시장 BEP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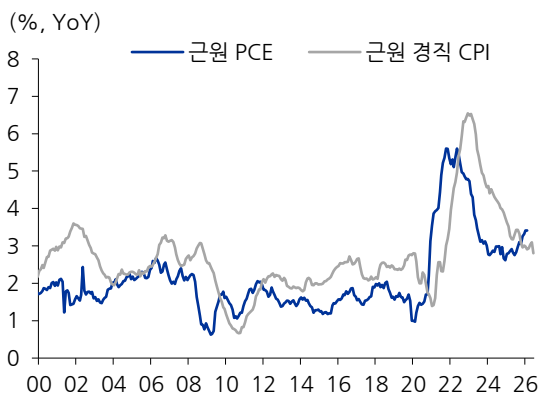
자료: Fed, 유진투자증권

현재 미국 고용시장은 매우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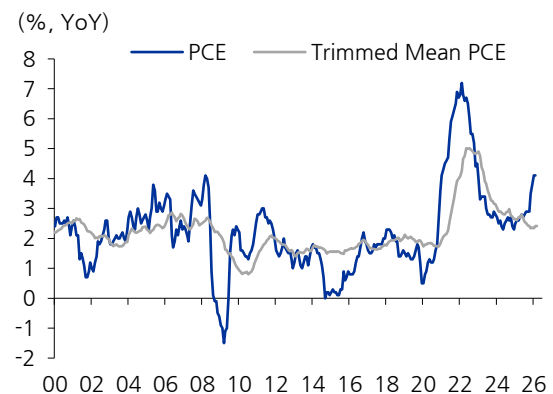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수요 측 인플레이, 기저 인플레이 모두 목표 상회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연준, Trimmed Mean PCE의 문제점 지적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